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특별행)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불법요급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전남 전국체전 D-11

2008 전국체전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10~16일까지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일원에서 펼쳐질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에는 베이징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 다시 한 번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의 멋과 정 듬뿍 담아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초대

◇친환경 녹색체전=전남은 이번 전국체전을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컨셉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개·폐회식에서 축포,불꽃놀이를 완전 폐지하고 물기둥으로 연출하며 행사장 단상은 친환경 과일로 장식된다. 또 경기장 시설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신설되는 주차장은 잔디 블럭(여수 진남경기장, 나주 종합경기장, 인라인 롤러경기장등)으로 시공했으며 84개소 선수 대기실 및 운영사무실에 심리적 안정감, 방향성 환풍작용, 공기정화, 컨디션 조절 기능이 탁월한 퍼톤치드방을 설치·운영한다.

경기장 주변에는 야생화거리를 조성하고 일회용품 안쓰기 등 쓰레기 제로운동을 전개해 선수단과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된다.

축포·불꽃놀이 폐지 등

탄소 배출 최소화 주력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

또 체전 전에 경기장 전력량, 개·폐회식 차량등 탄소배출 조사대상을 선정해 배출량을 산출하고 체전 이후에는 체전 기간 탄소발생량 조사 및 감축 이행 조사항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개·폐회식에도 친환경 녹색체전의 테마가 등장한다. '녹색의 땅 미래를 향한 바다'를 주제로 바다와 섬, 의로운 고장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녹색체전'과 전남의 비전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강하게 표현한다.

개회식은 풍요로운 땅, 의의 고장 전남이 대자연과 호흡하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내는 것을 표현하고, 폐회식은 전남으로 모인 젊음의 새기운을 신해양시대 미래를 향한 힘찬 비상으로 표현한다.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과 도내 육지에서는 해남 땅굴, 섬은 신안가거도에서 채화된다.

지난 19일 공식채화자인 강화도 마니산 채화를 시작으로 24일 해남 땅굴, 30일 신안 가거도에서 채화돼 전남 도청에 안치된 성화는 다음달 6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합화해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22개 시군 89군 820.9km를 봉송, 오는 10월 10일 개회식 날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점화된다.

이외에 전남을 찾는 선수와 임원인



오는 10월 10~16일까지 여수시와 전남 일원, 광주시 등지에서 펼쳐질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친환경 녹색체전'을 컨셉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 녹색체전을 홍보하는 친환경 과일로 장식된 탑을 전남 일원에 설치할 예정이고, 개막식에서도 행사장 단상을 친환경 과일로 장식한다.

집값이 편하고 혼혼한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다함께 즐기는 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은 생산유발 1천639억원, 고용유발 8천619명, 부가가치유발 747억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7일간 전남을 찾은 선수단과 관광객을 통한 효과는 생산유발 552억원, 고용유발 4천320명, 부가가치유발 253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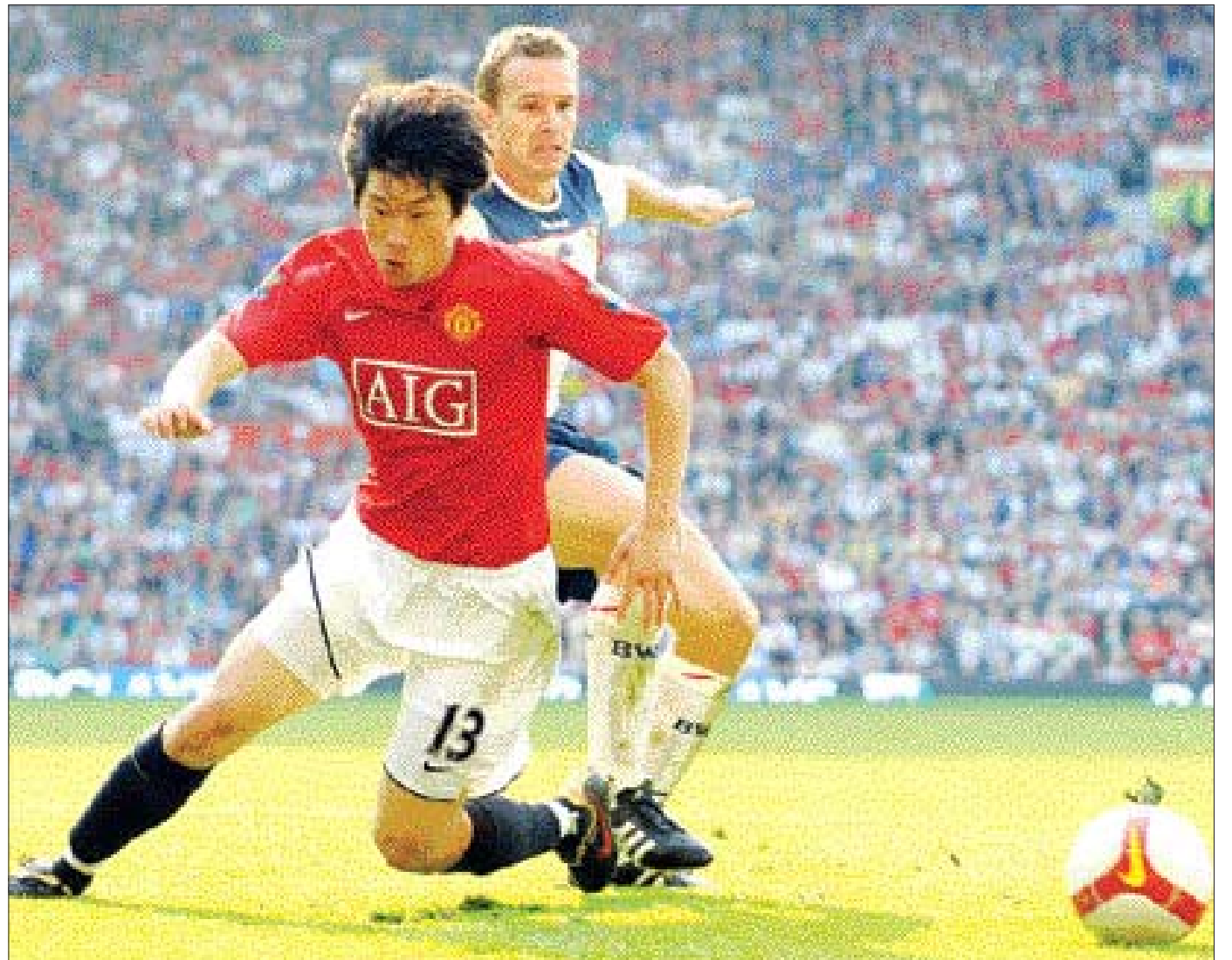
◇경기장 신속 등 준비상황=이번 체전에 사용될 62개 경기장중 52경기장에 총 601억원을 투입해 시설 및 개보수를 완료했다.

이번 체전을 위해 신설되는 목포 하키경기장, 나주 인라인롤러경기장, 전남 종합사격장 등 신설경기장도 공사를 완료하고 개막일만 기다리고 있다.

특히 경기장은 종목별 경기장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20종목의 프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했으며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의 연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녹색체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 및 개·보수 대상인 경기장에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설과 주차장에 잔디블럭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 시설 시공을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사진 왼쪽)이 28일(한국시간) 영국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볼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케빈 데이비스와 공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열심히 뛰었다'

볼튼전 풀 타임 출전...평점 7

팀 2-0 승 기여...설기현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올시즌 처음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 승리를 도왔다.

박지성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2008-2009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볼튼 원더러스와 홈경기에서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교체 없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이번 시즌 들어 첫 풀타임 출전이다.

지난해 3월 2골을 뽐내던 볼튼을 만나

시즌 2호 골에 도전했지만 2경기 연속 득점포는 가동하지 못했다.

그래도 박지성은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가끔 가운데로 침투해 골을 노리는 적극성도 돋보였다. 활발한 수비 가담으로 지지 않는 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지성의 활약 속에 맨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두며 2승2무1패로 승점 8을 기록,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지성은 지지 않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90분을 뛰면서 팀의 2-0 승리에 이바지한 박지성에 '평점 7과 함께 "열심히 뛰었다(Full of running)"'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설기현(28·풀럼)은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로이 호지슨 감독으로부터 끝내 출격 명령을 받지 못하고 결장했다.

/연합뉴스

김두현 무릎 부상

최소 6주 결장... '허정무호'도 비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두현(26·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사진)이 무릎 인대를 다쳐 최소 6주 동안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속팀은 물론 허정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두현은 지난 27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에서 열린 2008-2009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서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지만 경기 시작 1분도 안 돼 하프라인 왼쪽 부근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패스를 이어받으려 살짝 방향을 틀던 김두현은 그대로 잔디 위에 누워버렸고 얼굴 가득히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표정으로 들것에 실려나갔다. 김두현은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하고 토니 모브레이 웨스트브롬 감독은 세일 맥도날드를 대신 내보냈다.

모브레이 감독은 경기 끝나고 나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두현이 로베르트 코렌의 패스를 받으려고 방향을 돌리다 무릎 인대에 손상을 받은 것 같다"며 "최소 6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부상의

심각성을 전했다. 김두현의 부상 소식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홈경기를 앞둔 허정무호에도 큰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최종예선 1차전 북한전에서 기막힌 패스로 기성용(서울)의 A매치 데뷔골을 도우면서 팀의 패배를 막았던 김두현은 이번 부상으로 내달 9일부터 파주NFC에서 시작하는 대표팀 훈련에 나서기 어려워지게 돼 가뜰이나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허정무호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연합뉴스



28일 열린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한솔코리아오픈 단식결승에서 키릴렌코가 사만다 스토서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둔 후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키릴렌코 우승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

마리아 키릴렌코(33위·러시아)가 총상금 15만5천달러가 걸린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한솔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에 올랐다.

키릴렌코는 28일 서울시 송파구 양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사만다 스토서(73위·호주)에게 2-1(2-6 6-1 6-4) 역전승을 거둬 우승 상금 2만1천40달러를 차지했다.

출발은 스토서가 좋았다. 지금까지 세 번 만나 2승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던 스토서는 초반부터 키릴렌코를 공략, 첫 세트를 6-2로 따냈다. 게임스코어 1-1에서 키릴렌코의 서브 게임을 따내 기선을 잡은 스토서는 최고 시속 197km에 달하는 강한 서브를 앞세워 키릴렌코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2세트가 시작되면서 거짓말처럼 경기 흐름이 뒤바뀌었다. 게임스코어 1-1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킨 뒤 곧바로 스토서의 서브 게임을 따내 키릴렌코는 이후 3세트 게임스코어 4-0이 될 때까지 아홉 게임을 연달아 이겨 승세를 굳혔다. 스토서는 3세트 게임스코어 0-4로 뒤지다가 내리 세 게임을 따내 뒤 이어진 키릴렌코의 서브 게임을 두스까지 끌고 가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지만 끝내 4-4를 만들지 못하고 3-5가 돼 무계중심시 키릴렌코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이로써 키릴렌코는 올 시즌 세 번째, 개인 통산 다섯 번째 투어 단식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시즌 14호 홈런

시카고전 2안타 2타점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26)가 시즌 14호 홈런을 포함해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 US셀룰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나

서 1회초 솔로 홈런을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디트로이트전에서 홈런 2방을 기록한 뒤 8일 만에 홈런을 추가한 추신수는 이로써 시즌 14번째 홈런으로 최희섭(KIA)이 기록한 한국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 1개차로 다가선 한편 시즌 98번째 안타를 기록하며 세 자리수 안타에 2개를 남겨뒀다.

9경기 연속 안타와 5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추신수의 타율은 0.309(종전 0.307)로 약간 올라갔고 타점은 66점째를 올려며 개인 통산 100타점에 6개만을 남겼다.

'근육통' 임창용 1군 복귀 불발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마무리 투수 임창용(32)이 등 통증 재발로 27일 1군에 복귀하지 못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는 지난 27일 인터넷판에서 임창용이 이날부터 1군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등 근육통이 도져 엔트리 복귀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임창용은 17일 2군으로 내려갔다. 당시에는 2~3일 쉬면 몸이 좋아져 열흘이 지난 이날 1군 복귀가 점쳐졌으나 통증이 도져 발목이 잡혔다. /연합뉴스